

'시계 제로' 정국 돌파구 찾을까

합의 가능성에 무게... 여야 최종담판 귀추 주목

지난해부터 이어온 '법안전쟁'이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기속년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1일 15일째 이어오던 국회의장실 농성을 풀고, 여야 3당도 2일 오후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지만 파행정국이 해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강력 대응하면서 나타난 이번 여야 대치는 새해 벼두 정치권뿐 아니라 올 한해 정국의 향배를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 정지화=여야는 정쟁 법안 처리를 놓고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 한나라당은 이미 '2008년 내 법안 처리' 목표가 무산될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고사작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측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 우선 결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매일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정쟁법안 강행처리시 장외투쟁과 함께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말에 불이닥칠지 모르는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해제 변수 되나=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실 농성을 전격 해제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과 법안전쟁으로 무너진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질서유지권은 발동 이후 다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소한의 입지를 세우겠다는 동시에 국회 점거농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전격적 결정이 여야 간 대화 무드 조성에 따른 것이 아닌 가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날 오후 양당 대표 회담 이후 밤에는 원내대표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합의 처리'나 '합의 처리' 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조건 없이 2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의장의 선택=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 농성을 해제기로 한 소식을 접한 뒤 원만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불합점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분회외장 강제해산 조처나 정쟁법안 작권상정 강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일단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불합점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분회외장 강제해산 조처나 정쟁법안 작권상정 강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일단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불합점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분회외장 강제해산 조처나 정쟁법안 작권상정 강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일단 협상 과정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회의장 점거 농성 해제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과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해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제난 극복 한 목소리

한 '속도전'... 민주 '악법 저지' 새해 의지 다져

여야는 기속년(己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신년하례식과 단배식을 각각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MB 악법'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앞에 맹세한 경제살리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란을 겪을수록 나라

가 더 흥해진다는 '다난흥방(多難興邦)'이 이뤄지는 소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다 같이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면서 흥방의 역사를 쓴 주역으로 같이같이 기억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로터니 홀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MB 악법'의 1차 저지선을 확보했다"며 "혼신의 노력과 단결력으로 'MB 악법'을 확실하게 막아낼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출발과 전진을 위한 뉴 민주당 플랜을 향한 열정도 멈추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은 국

가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 믿음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역설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단배식을 갖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회창 총재는 '풍운 지휘(風雲之會 : 용이 바람과 구름을 물고 하늘로 올라간다)'를 신년 화두로 내세우며 "올해는 나라가 융성하는 한편 당원 동지와 손잡고 당세를 확장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커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들은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잇따라 방문, 순국선열에 헌화하면서 새해 첫날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시행착오 훌훌 털고 새 출발"

靑, 기속년 새해 일신 다짐

청와대가 집권1년차의 시행착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선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올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걸린 한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 한해를 허송세월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순탄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 정권으로서의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신발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와 신년 연설 등을 대독 앞당긴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의 신년 화두는 단연 경제다. '위기를 기회로'를 전면에 내 건 이 대통령의 올 한해 승부는 경제에서 판가를 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국회가 받쳐주고, 국민이 힘으로 기꺼이 동참하면 위기의 조기 종결은 물론 '위기 뒤의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와 각오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집권 2년차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내부 수단의 제한성과 경기 불가침에 따른 미지의 뇌관 등을 감안하면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한 보편 대립, 정파 이기주의, 계층간 갈등 등도 합당한 파고다.

李 대통령 오늘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취임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진행되는 신년 연설의 화두는 '경제살리기'로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력 결집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새해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기속년(己丑年) 새해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국민적 단합과 고통분담 등을 호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상반기 국내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갖고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9 국가직(9급:4월 11일), 7급(7월 25일)
지방직(9급:5월 23일), 7급(9월 28일)

겨울방학 공무원 대개강

일자: (차) 1월 2일 (차) 1월 5일

가강당임은 접수창구가 혼합하오니 사전접수바랍니다.

www.hanbitgosi.co.kr

전국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겨울방학 대개강 (차) 1월 2일 (차) 1월 5일

합격률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공무원 합격 압도적 1위

79점 슈퍼드림팀

해당기 업그레이드 필수과목

한판단과반

주부/대학원/직업관리를 위한

9급 야간특설반

민법/형법/교과형법/사무/경제/영어/법학/법학/고령/보육/사회복지/스펙/출판/농림/전산/기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본서 첫 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국비지원 고용보험제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목포점 개강 1월 2일 하당지구 목포기독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화정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작강!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이인호 교수 서울 중로, 분당 출강!!

이유중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장경중 교수 현, 새우사 9년 세법 강의!!

주책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국비지원 개강일전 매강 월면정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급 공무원 특강

30 주부특별반 행 교세관감법검마철출교보보복전소기단 10월 기능직
40 주 0안 생활리강의중 정육무세사원찰약공관정건호지산방술과 1입면상시,한국사,2과목

'09년 시험안내

시행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지방직 5월 23일, 7급 7월 25일 시험
채용인원: 국가직 3,267명, 지방직 총 4,242명 모집
※서울 903, 경기 6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개강 1월 2일(주,아) (현재예약접수중)

내년 소방직(사·도별 채용안)

서울 225명, 부산 72명, 대구 81명, 인천 259명, 광주 80명
대전 78명, 울산 82명, 경기 250명, 강원 60명, 충북 110명
충남 128명, 전북 80명, 전남 50명, 경북 171명, 경남 135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